

특집 기고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제25회 교토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를 다녀와서

한주연 호암미술관 수석연구원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제25회 교토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를 다녀와서

### 박물관 교육의 전문성을 찾아서

박물관 교육자(Educator)는 박물관에서 교육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다보니 관계에서 얻는 에너지 때문인지 씩씩하고 명랑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자 중에서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교육 업무는 협업이 기본이라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지만 가끔 그러한 박물관 교육자도 회의적일 때가 있다. 교육 업무 자체가 크고 작은 프로그램 모두 티도 안 나는 일은 너무 많으며 특히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을 때는 집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보다 박물관에 오는 아이들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다.

박물관 교육자, 영어식으로는 에듀케이터, 큰 의미에서는 학예사로 통칭되기도 하고 때론 교육사라는 규정되지 않은 용어로 불리기도 하며 계약직인 경우 연구원이라고도 한다. 주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평가하는 교육 운영 전반을 맡지만 때로는 홍보와도 업무 연관성이 깊고, 교육용 자료를 만들려면 연구도 해야 하며 디자인 감각도 필요하다. 게다가 박물관 교육자에게 관람객의 대상별 이해도 요구되는 가운데 어린이 전시나 디지털 소통과 같은 다양한 접근법도 업무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예사에 준하는 지식, 교육학적 방법론, 예술경영과 마케팅의 역량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융합적인 인재이자 문화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버겁고 고민스럽다. 도대체 박물관 교육자의 전문성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던 나는 세계의 박물관인들이 모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에 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올해 가까운 교토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했다. 물론 올해는 한일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교토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전 세계에서 박물관인들이 모이는 이런 행사야말로 민간 외교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결정했다.

이번 교토 총회의 주제는 ‘문화 허브로서의 박물관: 전통의 미래(Museums as Cultural Hubs: The Future of Tradition)’로 진행되는 가운데 나는 여러 국제박물관협의회 분과 중 교육 및 문화활동위원회(CECA, Committee for Education and Cultural Action)를 신청했다. CECA는 ICOM의 가장 오랜 분과 중 하나로 회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작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통해 CECA를 알게 되었는데 국내에서 이미 꾸준히 활동해오신 분들도 계시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CECA는 박물관워크숍, 세션 발표, 현장 답사들을 진행하였고, 세션 발표는 다양성 연구, 건강과 복지(Health and Well-Being), 문화적 행동은 무엇인가(ICOFO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ology 공동 주최), 사회 정의를 위한 박물관 교육, 다양한 관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박물관의 가능성, 박물관의 안과 밖, 우수 연구자 및 프로그램 시상자 발표 등의 소주제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였다.

세션 발표들이 끝난 후 분과별로 현지 답사(Off-Site Meeting)를 진행하였고 CECA는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는 와카야마라는 지역을 방문했다. 첫 방문은 와카야마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일본 어촌의 민가와 와카야마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관람했는데 마침 버스에서 도쿄국립박물관의 미나코 다카하시 실장님과 나란히 앉아 가며 이동구간마다 한국과 일본의 미술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하며 CECA의 2019년 우수 프로그램(Best Practice)에 대한 시상식을 하였는데 네덜란드의 크롤러 뮐러 박물관(Kroller-Moller Museum)의 <디지털 블록 캘린더>, 브라질 부탄탄 역사박물관의 <과학 속 여성: 국제 여성의 날>,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의 <학생 아키비스트 프로젝트>, 대만 고궁박물관의 <신비한 STEAM 기차 프로젝트> 등의 박물관 교육자들이 수상하였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상하면 우수 프로그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지 않을까 싶으면서 실무자들에게도 큰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았다.

와카야마미술관과 박물관도 방문했는데 박물관에서는 이 지역 고등학생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를 하는 고등학생들은 '세계 쓰나미의 날' 행사를 진행했던 와카야마 지역 학생위원회 멤버들로 외국 손님들이 온다고 많은 준비를 한 눈치였다. 해안에 위치한 이 지역 고등학생들이 쓰나미를 연구하면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 선조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와카야마 박물관의 유물에서 기록을 찾는 것부터 학생들의 프로젝트 조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인터뷰도 하면서 당시의 일을 현실의 삶을 연결시키는 활동은 박물관과 학교 연계 교육이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사례로 CECA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와카야마 미술관에서도 역시 지역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전시설명을 하는 아트클럽과 함께 기획전시에 대한 초중고등학생들의 감상법을 소개했는데 대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지역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찾아서 방문하고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활동이 반가웠다. 특히 일본 박물관의 체험활동에 사용되는 새로운 재료 하나까지도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교육담당자들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ECA 운영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CECA에서 활동을 하려며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해주시며 나의 주요 활동 분야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서 적잖이 당황하였다. 우리는 박물관에서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주력하는 연구주제가 없다 보니 이런저런 주제들을 막 나열했는데 무표정하게 들으시다가 한국의 도슨트가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관심을 보이셨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박물관 교육을 보는 시각과 해외에서 보는 관심의 시각이 차이가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간 박물관 교육업무를 하면서 늘 새로운 대상과 접근법을 찾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각자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 우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박물관 교육자라고 CECA에만 참여할 필요는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우수연 선생님이 이번에 발표한 국제전문인력위원회(ICTOP, The ICOM Committee for the Training of Personnel)도 있고, 박물관 운영 전반으로 본다면 국제박물관운영위원회(INTERCO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Museum Management)도 참여하여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박물관지역협의회(ASPAC, Asia Pacific Network of Science and Technology Centres)에서도 아시아의 박물관,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듣거나 발표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분과에서 정보를 듣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양한 분야 속에서 정체성과 역할을 찾고 해외의 박물관 교육자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시각과 조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제박물관협의회이다.



도 1. CECA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



도 2. CECA 답사 : 와카야마 박물관의 고등학생 프로그램

## 함께 발견하는 즐거움

국제박물관협의회 첫날부터 나흘간의 세션은 오전 시작으로 분과별 발표와 토론이 빠듯하게 짜여져 회원들은 자신이 속한 분과나 관심사를 듣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녔다. 이번 행사에는 별도의 앱이 개발되어 참여자들에게 행사의 공지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고 발표의 경우에는 발표자의 정보와 발표내용, 개인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발표장소에 대한 약도까지 확인가능했다. 3일 동안 여러 발표들을 기웃거리다보니 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세션들이 끝나면 저녁 시간에는 회원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행사 (Social Programme)가 마련되었고 교토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방문하거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첫날 행사는 교토문화회관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고 다음 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니조성(Nijo-jo Castle)에서 이루어졌는데 너무 많은 회원들이 니조성에 참석하여 줄을 서서 입장하는 장면도 장관이었다. 날씨는 서울보다 더운 날씨였지만 야간 조명 속에서 빛나는 니조성의 웅장함은 아름다웠고 전통 건축물 내 현대미술 전시인 <미의 감각 Sense of Beauty>도 색다른 경험이라 모두 감탄하였다. 다음 날에는 교토 식물원에서 행사를 하였는데 여기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명화의 정원>이라는 야외 전시 공간이 있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노(Noh) 공연은 저녁마다 열렸지만 나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와카야마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교토로 돌아와서 들렀던 헤이안 신궁(Heian Jingu Shrine)에서의 본 쇼(Sho)와 가가쿠(Gagaku) 공연이 인상적이었다. 조용한 공간에서 야간 조명이 운치있게 공연을 부각시키면서 관람객과 연못을 사이에 두고 관람객과 일

정 간격 떨어진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연기와 음악은 전 세계에서 온 회원들에게 일본 문화를 품격있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저녁 시간마다 마련된 이런 문화행사들은 개인적으로 교토를 방문해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이번 교토 국제박물관협의회를 신청하면서 개인적으로 배움도 배움이지만 교토를 즐기고 싶다고 생각도 했었기에 대회를 등록하면서 여러 투어들을 찬찬히 비교하며 다도체험을 신청했다. 가급적이면 업무와 관련이 없고 참여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프로그램 일정 중 센 리큐의 다이안 다실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여섯 번째 날 진행되었던 여러 투어는 교토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각 투어의 번호를 들고 있는 인솔자들과 만나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다. 이 투어의 인솔자는 연세가 꽤 많은 여성분이었고 영어가 가능하면서 다도를 배우고 있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셨다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다. 70세는 넘으신 것 같은 할머니이셨는데 얼마나 침착하고 친절하게 진행을 잘하시는지 놀라웠다. 투어의 첫 방문지는 빅토리안앨버트박물관과 보스턴미술관에까지 소장이 되었다고 하는 다기를 제작하는 마쿠주 공방(Makuzu pottery)으로 3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다기를 만드는 과정과 다도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고 다도의 주제는 ‘가을 달’이었다. 이곳에서 참석자들은 일본과 각자 국가의 다도법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문화적 차이가 흥미로웠다.

그다음 일정으로 센 리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야마자키 역사관을 방문하여 당시 역사를 대략적으로 이해한 후, 현재 국보인 다이안 다실을 방문했다. 다이안 다실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세 개의 다실 중 하나로, 16세기에 만들어진데다가 작년 지진으로 복원을 해서 관람에 제약을 두었다. 5명씩조를 나누어 한 조가 다실을 보는 동안 나머지 인원은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며 다실을 보는 것도 그 안을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작은 문틈으로 다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건물 자체가 다다미 네 장 반 크기의 작고 어둡고 불편한 이 다실은 정신적인 교류와 단순함을 지향하는 센 리큐의 독특한 철학을 담았다고 한다. 가령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출입구는 신분의 차별을 무색하게 하고, 좁은 공간에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작은 목소리도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이 극소 공간을 즐기는 센 리큐의 철학을 담은 다도라고 한다.

다이안 다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후지이 고지가 설계한 초치쿠쿄(Chochikukyo, 대나무 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뜻)를 방문했는데 이 집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집으로 서양식 건축양식과 일본의 전통 가옥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건물이었다. 많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채광과 통풍을 계획한 후지이 고지의 이 주택은 현재 한 건설사가 유족으로부터 매입하여 관리 중이며 우리가 도착하자 직원분들이 나와서 주택의 독특한 구조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었다. 창과 문, 가



구, 주방의 설계까지 건물의 디테일이 아름다운 집으로 교토에 가시는 분들 중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었다.

교토 국제센터에서 분과 발표만 3일 동안 듣다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하니 정말 교토에 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고 더 좋았던 것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대만의 기업박물관에서 온 큐레이터, 루마니아의 고고학자, 시카고에서 온 국제박물관협의회 펠로우, 도쿄 화폐박물관큐레이터를 비롯하여 홍콩, 중국, 러시아 등에서 온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다 보니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다가 20명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게 되면서 여행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은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되어 서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또한 여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 큐레이터가 추천한 교토의 라쿠(Raku) 박물관을 마지막날 550년 전통의 소바집과 함께 방문하게 만들었다. 작은 박물관이었지만 전시장으로 들어가니 이미 해외에서 온 국제박물관협의회 회원들이 눈에 띄었다. 그곳은 다완사였던 라쿠 키치차에몬 가문에서 만든 박물관으로 도자 작품들을 보며 설명들을 읽으니 전날 보았던 센 리큐의 와비 정신을 구현하는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차의 맛과 다완의 형태가 하나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토에서 박물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와 도자기, 다도를 한껏 경험하고 갈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여정이었다. 국제박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본 문화를 경험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하는 박물관에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 이런 여행과 흡사하단 생각을 하며, 국제박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세션을 통해 공부만 하지 말고 문화 체험도 꼭 신청하길 권한다.



도 3. 330년 전통의 마주쿠 도예공방



도 4. 코지 후지가 100년 전 설계한 주택 조치쿠료

## 하나의 박물관, 새로운 박물관으로

국제박물관협의회 교토 총회는 그야말로 성황리에 진행되어 참석자 수가 4,5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대회장에 입장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현장에서 판매되는 당일 입장권은 매일 아침 일찍 매진이 되었다. 참석자가 너무 많다 보니 행사 운영에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온 참석자들은 이미 일본과 교토에 대한 관심과 동경을 가지고 방문한 듯 보였고 고도(古都)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회원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자하니 도시 자체의 문화적 인프라와 고즈넉한 분위기, 사람들의 친절과 깨끗한 시설 등을 칭찬하였다.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행사 자체의 구성과 운영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행사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싶었다. 한 도시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게 되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홍보를 통해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교토처럼 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를 조직화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 회원들 모두에게 중요한 행사는 박물관 정의에 대한 개정안 투표였고 개인적으로는 대회 전반부 3일 동안 진행된 기조강연도 인상 깊었다. 대개의 학회나 행사의 기조강연에선 유명한 명사나 석학의 짧은 스피치를 형식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국제박물관협의회의 기조강연은 건축가, 사진작가, 설치작가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최고 명사들이 박물관인들에게 그들을 하나의 관심사로 묶어주는 강한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첫 기조강연은 켄고 쿠마(Kengo Kuma, *The age of Forest*)로 콘크리트의 시대에서 숲의 시대로 가자는 내용으로 장소와 자연에 녹아드는 자신의 박물관 건축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세바스티앙 살가두(Sebastiao Salgado, *A Brazilian Amazon forest initiative*)의 기조 강연은 브라질 아마존에 대한 그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웅장한 음악을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작품들을 소개하였는데 이를 감상한 청중들은 영상이 끝나자마자 모두 기립 박수를 보냈다. 강연 후 그에게 질문도 쏟아졌는데 살가두를 검색하니 76세. 브라질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68세대로 논리적인 이론과 견고한 작업은 브라질의 문제가 단지 브라질, 원주민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에 몸담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인류의 문제임을 인식시켜주었다.

마지막 기조강연은 중국 현대미술가인 차이궈창(Cai Guo-Qiang, *My Museum Years*)으로 1999년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꾸준히 미술관 제도에 도전해 온 20년간의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뉴욕, 멜버른, 모스크바, 마드리드, 피렌체 등 전 세계의 다양한 도시의 박물관에서 펼쳐



은 그의 작품은 박물관이 단순한 관광자원으로 기능하지 않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의 강연까지 3일 동안의 기초강연을 듣자니 박물관에 있어 예술의 가치와 영향력이 중요한 생각도 들었다.

이번 국제박물관협의회 일주일간의 가장 놀라운 경험은 박물관 정의를 개정하는 총회의 찬반투표였다. 2017년 새롭게 구성된 ICOM-MDPP(Committee for Museum Definition, Prospects and Potentials)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2007년 개정된 현재의 박물관 정의가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한 여러 문제에 적합한지를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현재의 박물관 정의와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2007년 개정 정의]

박물관은 사회 및 그 발전을 위해 교육, 연구 그리고 즐거움을 목적으로 모든 대중에게 열려 있으며 인류와 환경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전달 그리고 전시하는 비영리 상설기관이다.<sup>1)</sup>

### [2019년 개정 논의안]

박물관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판적 대화를 위한 민주적이고 포괄적이며 다중적인 공간이다. 현재의 갈등과 도전을 인정하고 논제화하면서 박물관은 사회의 신뢰 속에서 유물과 표본을 수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기억을 보호한다.

박물관은 이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박물관은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전지구적 평등과 우주적 안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하면서 수집, 보존, 연구, 해석, 전시 및 이해를 독려한다.<sup>2)</sup>

---

1) A Museum is a non-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its development, open to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study and enjoyment. (ICOM Statutes, adopted by the 22nd General Assembly in Vienna, Austria on August 24th, 2007)

2) Museums are democratising, inclusive and polyphonic spaces for critical dialogue about the pasts and the futures. Acknowledging and addressing the conflicts and challenges of the present, they hold artefacts and specimens in trust for society, safeguard diverse memories to heritage for all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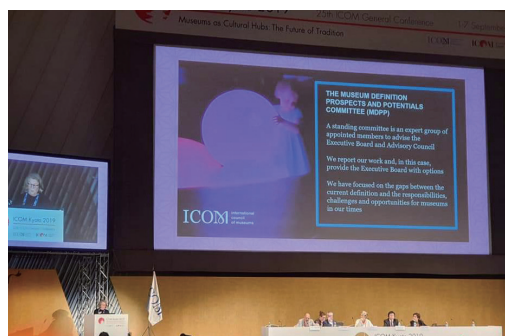
Museums are not for profit. They ar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and work in active partnership with and for diverse communities to collect, preserve, research, interpret, exhibit, and enhance understandings of the world, aiming to contribute to human dignity and social justice, global equality and planetary wellbeing.

총회에서 새로운 박물관의 정의에 대한 의제는 결국 개정을 ‘연기’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의 위원회와 분과들이 4시간 가까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의사결정 과정은 한국의 문화에서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새로운 개정안은 정치적인 논리와 전략이 부족하여 추후 변경될 경우의 부작용, 심지어 국가마다 처하게 될 법률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며 15개의 분과 중 다수가 연기 또는 반대를 했으며 평회원들까지 마이크를 요청하며 자신의 오랜 경험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나는 처음 접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부러웠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 않은가.

교토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이 개정안에 있어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했다. 우리의 박물관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득권을 가진 서구 박물관과 같은 입장인가 아니면 박물관과 도시 개발, 관광을 엮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입장인가. 그 중간의 입장에 있다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박물관의 운영을 고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생각을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의 박물관인들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순간, 박물관 교육자인 우리는 혼자, 또는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총회는 2022년 프라하에서 열린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박물관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3년 동안 좀 더 멀리, 함께 논의하면서 국제박물관협의회의 문을 두드려보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어의 장벽도 쉽게 넘을 수 있다. 박물관의 큰 그림을 경험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즐겁게 넘길 것이라 믿으면서 국제박물관협의회의 활동을 추천한다. 우리는 박물관 교육자이기 전에 박물관인이다.



도 5. 교토 국제박물관협의회 세바스티앙 살가두 기조강연



도 6. 박물관 정의 개정에 대한 2019 총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논문집

# 박물관 교육

-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제작 도서출판 (주)계문사 (02-725-5216)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Copyright©2018 National Museum of Korea

